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0월 8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4장 1-4절

설교제목 :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오늘은 레위기 24장인데 내성소의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내성소의 등잔대와 진설병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합니다. 가령 등잔대는 일곱 가지로 뻗은 촛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촛대를 교회라고 합니다.(계1:12) 요한이 일곱 금 촛대를 봅니다. 그런데 그 일곱 금 촛대가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계1:20) 그런데 무슨 촛대이지요. ‘금’ 촛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성소에 있던 금등잔대를 연상케 합니다. 이처럼 등잔대는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소안의 등잔대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언약의 시대에 교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등잔대는 밤에 어두운 성소 안을 계속해서 밝히는 기능을 했습니다.(2절) 등잔불을 켜는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입니다.(3절) 저녁시간에 켜서 아침에 켜졌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켜둘지라’는 의미는 밤낮 항상 켜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는 것을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새언약의 시대에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둠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요8:12) 이 빛은 사람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최악의 어둠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빛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생명의 빛, 영생을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불어 교회 역시 세상의 빛입니다.(마5:14-15)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산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숨기지 못하고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것은 등잔대의 모습 속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와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출25:31-32) 등잔대와 연결된 가지의 수가 모두 일곱입니다. 일곱 개의 가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고, 줄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강조된 것이 항상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3절 “아론은 회막안 증거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본문에서 ‘정리할지니’의 히브리 원형은 ‘아라크’인데 질서있게 배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질서있게 배열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돌보라는 의미도 갖습니다. 질서의 개념과 더불어 끊임없는 살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3절은 등잔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4절은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3절은 등잔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저녁과 아침으로 거룩한 불빛을 낼 수 있도록 등잔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2절) 등잔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성령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빛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

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은 오직 거룩과 기도에서 옵니다. 특별히 기도없이는 결코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등잔대 위의 등잔들은 예수님의 몸으로써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등잔들 앞에 ‘순결한’이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순결한이란 정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한 상태 즉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여호와 앞에서 항상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의 순전함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순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과 가교를 많이 놓아도, 교회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교회답지 못하면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때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비치게 하여’, ‘보고’란 단어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보여 주면 설득이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를 보여주는 빛입니다. 이것이 저는 ‘비치게 하라’와 ‘보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면 교회는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로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순전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지고, 보여 진다면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 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흠어진 교회로서 참된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추어지고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결코 숨기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을 숨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진다면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정리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내성소의 등잔대가 예표하는 새언약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혼구원을 위해서 무엇에 힘을 써야 할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